

Session 10 The Twelve and the Sermon on the Mount (Lk. 6; Mt. 5-7)

제 10 강 열두 사도, 그리고 산상 수훈 (눅 6 장, 마 5-7 장)

I. JESUS SELECTED THE TWELVE APOSTLES (MK. 3:13-15; LK. 6:12-16)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을 택하시다 (막 3:13-15; 눅 6:12-16)

- A. Jesus selected the apostles and taught them the kingdom lifestyle (Lk. 6:12-49; cf. Mk. 3:7-19). His choice of the Twelve occurred immediately after His conflict with the Jewish leaders (Lk. 6:1-11).

예수님은 사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가르치셨다 (눅 6:12-49; 비교. 막 3:7-19). 그분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충돌한 직후 (눅 6:1-11), 열두 사도들을 선택하셨다.

- B. Jesus spent the night in prayer on a mountain near Capernaum and the Sea of Galilee before selecting the twelve apostles. This occurred near the summer of AD 28 (Mt. 5:1; Mk. 3:13-19; Lk. 6:13-16). Jesus had almost two years to train them before He died on the cross in April AD 30.

예수님은 열두 사도들을 택하기 전에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 근처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다. 이는 AD 28 년 여름 근처의 일이다(마 5:1; 막 3:13-19; 눅 6:13-16). 예수님은 AD 30 년 4 월에 십자가로 가기 전까지 거의 2 년 동안 이들을 훈련하신다.

¹² *...He went out to the mountain to pray, and continued all night in prayer to God.* ¹³ *...He called His disciples to Himself; and from them He chose twelve whom He also named apostles...* (Lk. 6:12-13)

¹²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¹³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눅 6:12-13)

- C. **Prayer:** Jesus prayed all night before choosing leaders, speaking the Word, and ministering to the people (6:12-13, 17, 20-49). This demonstrated Jesus' dependence as a man upon His Father.

기도: 예수님은 리더들을 택하기 전, 말씀을 전하기 전,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밤새 기도하셨다 (6:12-13, 17, 20-49). 이는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심을 보여준다.

1. Luke emphasized how Jesus lived as a “man of prayer” and how He often withdrew for prayer (Lk. 5:16; cf. 3:21; 6:12; 9:28-29; 11:1; 5-8; 18:1-8; 22:31-32; 22:41, 44; 23:34). The early church followed Jesus' example in prayer (Acts 1:2, 24-26; 2:42; 6:4; 13:2; 14:23).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는지, 또 얼마나 자주 기도를 위해 물러가셨는지를 보여준다 (눅 5:16; 비교. 3:21; 6:12; 9:28-29; 11:1; 5-8; 18:1-8; 22:31-32; 22:41, 44; 23:34).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삶을 따랐다 (행 1:2, 24-26; 2:42; 6:4; 13:2; 14:23).

2. Jesus made very important decisions after prayer—choosing the first leaders in the church and giving His most complete presentation of the kingdom lifestyle (Sermon on the Mount).

예수님은 기도 후에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 교회의 가장 첫 지도자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가장 완전한 모습을 알려주신다 (산상 수훈).

- D. Jesus sent them out to preach, to heal the sick, and to cast out devils (Mk. 3:15; Lk. 9:1-10).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어 전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게 하셨다 (막 3:15; 눅 9:1-10).

¹³ *And He went up on the mountain and called to Him those He Himself wanted. And they came to Him.*

¹⁴ *Then He appointed twelve, that they might be with Him and that He might send them out to preach,*

¹⁵ *and to have power to heal sicknesses and to cast out demons... (Mk. 3:13-15)*

¹³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¹⁴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¹⁵ (한글 KJV, 또 병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막 3:13-15)

1. The Twelve were the first people to function as Jesus' offici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As Jesus was commissioned to act for God, so the apostles were to act for Jesus (Jn. 20:21).

이 열두 사도들은 가장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이들이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보냄을 받았듯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위해 일하도록 보냄을 받았다 (요 20:21).

²¹ *Jesus said to them,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lso send you." (Jn. 20:21)*

²¹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 20:21)

2. The apostles modeled the ministry of Jesus—which is to be followed by the body of Christ.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었으며, 그리스도의 몸은 이를 따르게 되었다.

¹⁷ *These signs will follow those who believe: In My name they will cast out demons; they will speak with new tongues; ¹⁸ they will...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will recover." (Mk. 16:17-18)*

¹⁷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¹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 16:17-18)

¹⁸ *...God...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Jesus Christ, and has given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¹⁹ that is,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not imputing their trespasses to them, and has committed 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²⁰ Now then,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s though God were pleading through us..." (2 Cor. 5:18-20)*

¹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¹⁹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²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 (고후 5:18-20)

II. JESUS CHOOSE THE TWELVE APOSTLES (LK. 6:13-16)

예수님이 열두 사도들을 택하시다 (눅 6:13-16)

- A. The Bible provides four lists of the apostles (Mt 10:2-4; Mk. 3:16-19; Lk. 6:13-16; Acts 1:13).

성경에는 사도들의 이름을 전부 나열한 곳이 4 군데 있다(마 10:2-4; 막 3:16-19; 눅 6:13-16; 행 1:13).

¹³ ...He chose twelve...named apostles: ¹⁴ Simon...nam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James and John; Philip and Bartholomew; ¹⁵ Matthew and Thomas; James the son of Alphaeus, and Simon called the Zealot; ¹⁶ Judas the son of James, and Judas Iscariot who also became a traitor. (Lk. 6:13-16)

¹³ ...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¹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매와 ¹⁵ 마태와 도마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¹⁶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눅 6:13-16)

- B. The four lists each consist of three groups made up of four disciples and introduces the three groups of disciples by the same leader—Peter (group one), Philip (group two), and James, son of Alphaeus, (group three).

사도들이 이름이 언급된 4 번은 모두 각 4 명으로 된 3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으며, 이 3 개의 그룹에는 동일한 리더들이 있다 - 베드로 (그룹 1), 빌립 (그룹 2),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그룹 3).

1. The first five came from Bethsaida, and seemingly eleven of the apostles were all Galileans. The exception was Judas Iscariot who came from a town in Judea. The names are all Hebrew except Philip and Andrew who had Greek names.

처음 5 명은 벳세다 출신이며, 사도들 중 11 명은 모두 갈릴리 출신으로 볼 수 있다. 단 한 명의 예외는 유대 마을 출신의 가롯 유다였다.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을 빼고는 모두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2. The first group of apostles enjoyed the closest working relationship to Jesus. Peter, James, and John were spoken of together (Lk. 8:51; 9:28), though sometimes it was James and John being mentioned together (Lk. 9:54). Peter and John are also mentioned together (Lk. 22:8; Acts 3:1, 3, 4, 11; 4:13, 19; 8:14; Gal 2:9).

사도들 중 첫째 그룹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누렸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눅 8:51; 9:28), 때론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언급될 때도 있다 (눅 9:54).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언급될 때도 있다 (눅 22:8; 행 3:1, 3, 4, 11; 4:13, 19; 8:14; 갈 2:9).

- C. **Simon:** Jesus named him “Peter”—a rock—so that he would see himself as who God was making him to be. The impulsive Simon would become a steadfast rock from whom others drew strength. *Cephas* is Aramaic and means *Rock*. *Peter* is the English form of *Cephas* from the Greek, *Petros*.

시몬: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 즉, 반석이라 부르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그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충동적이었던 시몬은 다른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안정적인 반석과 같은 이가 됩니다. **게바**는 아람어로써 반석을 의미한다. **베드로(피터)**는 게바의 영어 이름으로써 헬라어 **페트로스**에서 왔다.

⁴² ...Jesus looked at him, He said, “...You shall be called *Cephas*” (which is translated, a Stone). (Jn. 1:42)

⁴²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 1:42)

- D. **James and John:** Mark added that Jesus called them “the sons of thunder” (Mk. 3:17).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을 알려준다 (막 3:17).

¹⁷ James...and John...to whom He gave the name Boanerges, that is, “Sons of Thunder”... (Mk. 3:17)

¹⁷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막 3:17)

- E. **Bartholomew:** Most agree that Bartholomew (a grecized form of *Bar-Tolmai* or the *son of Tolmai*) was Nathanael. In John's gospel Bartholomew is not mentioned; Nathanael is named with the apostles (1:46-51). Nathaniel is not mentioned by Matthew, Mark, and Luke, but Bartholomew is.

바돌로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돌로매(톨마이의 아들의 헬라이어 표현)가 나다나엘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매가 언급되지 않으며 나다나엘이 사도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1:46-51). 나다나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며, 바돌로메라는 이름만 나온다.

- F. **Thomas:** was known as "the Twin" (Jn 11:16)

도마: "디두모"라고 알려져 있다 (요 11:16).

¹⁶*Then Thomas, who is called the Twin, said... "Let us...die with Him." (Jn. 11:16)*

¹⁶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 11:16)

- G. **Simon called Zealot:** The Zealots was a political movement that rose up against Rome leading to destruction of Jerusalem in AD 70. Matthew and Mark referred to this Simon as "Simon the Cananite" (Mt 10:4; Mk. 3:18), which transliterated the Hebrew *Kananite*. It could also be interpreted as "zealot" because both Cana and "zeal" are from the same Hebrew root.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 즉 열심당은 로마에 대항해 일어난 정치적인 운동이며, 이 운동은 AD 70 년의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마태, 마가복음은 이 시몬을 "가나안인 시몬"으로 부르는데 (마 10:4; 막 3:18), 이는 히브리어 Kananite(카나나이츠)를 음역한 것이다. 이는 "열심당(zealot)"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가나와 "열심(zeal)"은 동일한 히브리어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H. **Judas the son of James:** Many identify him as having the surname Thaddaeus (Mt 10:3; Mk. 3:18).

야고보의 아들 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테오라는 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마 10:3; 막 3:18).

- I. **Judas Iscariot:** "Iscariot" is probably derived from the town he came from Keriioth (about 10 miles from Hebron in Judah). Iscariot means "a man from Keriioth."

가롯 유다(유다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옷"은 아마도 그가 케롯 출신이라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유대 헤브론에서 10 마일, 16km 정도 떨어진 곳). 이스카리옷은 "케롯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III. THE SERMON ON THE MOUNT (LK. 6:20-49; CF. MT. 5:2-7:27)

산상 수훈 (눅 6:20-49; 비교. 마 5:2-7:27)

- A. A multitude gathered to receive teaching and healing (Lk. 6:17-19). The message in Luke 6:20-49 is often referred to as the *Sermon on the Plain*, while in Matthew 5-7 it is called the *Sermon on the Mount* (spoken on a Galilean mountain). I refer to this sermon as the *constitution of God's kingdom*. It is Jesus' most comprehensive statement about a believer's role in cooperating with God's grace.

많은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고 치유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눅 6:17-19). 누가복음 6:20-49 절의 메시지는 종종 **평지 설교**라고 불리며, 마태복음 5-7 장은 **산상 수훈**이라 불린다 (갈릴리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 나는 이 설교를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부른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해나가는 삶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설명이다.

¹⁷ And He came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and a great multitude of people from all Judea and Jerusalem, and from the seacoast of Tyre and Sidon, who came to hear Him and be healed of their diseases, ¹⁸ as well as those who were tormented with unclean spirits... ²⁰ Then He lifted up His eyes toward His disciples, and said: “Blessed are you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²¹ Blessed are you who hunger now, for you shall be filled. (Lk. 6:17-21)

¹⁷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¹⁸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 ²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²¹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 (눅 6:17-21)

- B. The Beatitudes are like eight beautiful flowers in the “garden of our heart” that God wants to fully blossom. They define love, godliness, and spiritual maturity and describe the kingdom lifestyle.

팔복은 마치 하나님께서 완전히 꽃피우기 원하시는 “우리 마음의 정원”의 8 개의 아름다운 꽃과 같다. 이는 사랑, 경건, 영적인 성숙,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정의해준다.

³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⁴ Blessed are those who mourn... ⁵ Blessed are the meek... ⁶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⁷ Blessed are the merciful... ⁸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⁹ Blessed are the peacemakers... ¹⁰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sake,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Mt. 5:3-10)

³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 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 ⁶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 ⁷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 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 ⁹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 ¹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 5:3-10)

- C. Jesus gave two metaphors of *salt* (flavor, preservation) and *light* (direction, life) in describing the impact on society of people who walk out the eight beatitudes (Mt. 5:13-16).

예수님은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묘사하기 위해 소금(맛, 보존)과 빛(인도하심, 생명)이라는 2 개의 비유를 사용하신다 (마 5:13-16).

¹³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¹⁴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Mt. 5:13-14)

¹³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 ¹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마 5:13-14)

- D. Jesus invited everyone to be great in His kingdom by walking in the Beatitudes.

예수님은 팔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분의 나라에서 위대한 자로 서는 것에 대해 모든 이들을 초청하셨다.

¹⁹ Whoever breaks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ments... sha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whoever does and teaches them, he sha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Mt. 5:19)

¹⁹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 E. These eight flowers are cultivated as we “weed our garden” by *resisting 6 common temptations* (Mt. 5:21-48) and as we “water our garden” by *pursuing 5 kingdom activities* (Mt. 6:1-20).

우리는 이 8 가지 꽃들을 피워나감에 있어, 6 가지 일반적인 유혹들을 이겨냄으로 “우리 정원의 잡초를 뽑아내며”(마 5:21-48),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행동 양식을 추구해 나감으로 “우리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을 할 수 있다(마 6:1-20).

- F. In Matthew 5:21-48, Jesus spoke of six temptations that we resist: *anger* (5:21-26), *immorality* (5:27-30), disregarding the *sanctity of marriage* (5:31-32), not *keeping our commitments* (5:33-37), *retaliating* (5:38-42), and being *passive* in our love to our enemies (5:43-47).

예수님은 마태복음 5:21-28 절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할 6 가지 유혹들을 말씀하십니다: 분노(5:21-26), 음행(5:27-30), 결혼 서약을 멸시하는 것(5:31-32), 헛맹세(5:33-37), 보복(5:38-42),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수동적으로 함(5:43-47).

⁴⁴But I say 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ose who curse you,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and pray for those who spitefully use you and persecute you... (Mt. 5:44)

⁴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⁴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한글 KJV, 마 5:44)

- G. Jesus described 5 kingdom activities that position our heart to receive more grace as we consistently *serve and give* (charitable deeds: giving service and/or money, (6:1-4, 19-21), *pray* (6:5-13), *bless our adversaries* (fullness of forgiveness, 6:14-15; 5:44), and *fast* (6:16-18). These are spiritual disciplines that position our heart before God to receive more grace.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기고 구제하며(자비로운 행위: 봉사하며 연보함, 6:1-4, 19-21), 기도하고(6:5-13), 원수를 축복(온전한 용서, 6:14-15; 5:44)하고, 금식(6:16-18)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영적인 훈련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⁴That your charitable deed [giving service or money, v. 20] may be in secret; and your Father...will reward you openly...⁶When you pray...your Father...will reward you openly ...¹⁴Forgive men their trespasses...¹⁷When you fast...¹⁸your Father...will reward you openly. ¹⁹Do no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²⁰but treasures in heaven... (Mt. 6:4-20)

⁴ 네 구제함[섬기거나 재정으로 도움, 20 절]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⁶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¹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 ¹⁷ 너는 금식할 때에 ... ¹⁸ ...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¹⁹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 ²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마 6:4-20)

- H. Spiritual disciplines do not earn us God’s love, but place our cold hearts before the “bonfire of His presence.” As we embrace these disciplines, He gives more to our heart, but does not love us more.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의 화롯불”앞에 가져다 놓는 일이다. 우리가 이 훈련들을 해 나감에 따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하지만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다).

- I. Pursuing Jesus with confidence in His provision (Mt. 6:25-34): Jesus spoke of the necessity of pursuing the eight Beatitudes with confidence in His provision, especially related to our finances and possessions (Mt. 6:25-34). Worry and anxiety hinder our progress in walking out the Beatitudes. He calls us to escape slavery to the fear of not having enough (Mt. 6:25-33).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며 그분을 따라가기 (마 6:25-34): 예수님은 팔복을 추구해나갈 때 특히 우리의 재정과 소유의 부분에 대한 그분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며 나갈 필요를 말씀하셨다 (마 6:25-34).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팔복을 행해나가는 데 방해가 된다. 그분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종처럼 사로잡히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 (마 6:25-33).

²⁵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what you will drink... ³¹Do not worry... ³²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all these things. ³³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Mt. 6:25-33)

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 ³¹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 하지 말라 ³² ...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³³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25-33)

IV. LOVING JESUS IN THE FACE OF NEW RELATIONAL CHALLENGES (MT. 7:1-12)

새로운 관계적인 도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마 7:1-12)

- A. Seeking to walk out the kingdom lifestyle described in Matthew 5-6 will create challenges that result in new relational dynamics. Some will be positive and some negative. New relationships will be established as old ones are changed (sometimes improved and other times damaged).

마태복음 5-6 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려고 함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관계적인 도전을 만나게 된다. 어떤 부분은 긍정적이며,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다. 새로운 관계들은 이전 관계들이 변화됨에 따라 세워지게 된다 (때로는 나아지기도 하고, 때론 망가지기도 한다).

- B. We must avoid being hindered in our pursuit of the eight Beatitudes by the spirit of judgment. This occurs in two ways. First, by judging others who pursue God with less intensity than us (7:1-5). Second, by being judged by others who are against the Sermon on the Mount lifestyle (7:6).

우리는 이 팔복을 추구해나감에 있어 정죄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 첫째, 이는 우리보다 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들을 판단할 때에 일어난다 (7:1-5). 둘째, 이는 산상 수훈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 의해 우리가 판단을 받으며 일어난다 (7:6).

¹Judge not, that you be not judged... ⁵Remove the plank from your own eye, and then you will see to remove the speck out of your brother's eye. ⁶Do not...cast your pearls before swine, lest the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in pieces. (Mt. 7:1-6)

¹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 ⁵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⁶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 7:1-6)

- C. This particular call to prayer (7:7) is in context to seeking God to intervene in our relationships when people do not treat us in the way that we want to be treated (7:2). We ask Him for wisdom and seek Him to touch the hearts of those we are in conflict with and to intervene in circumstances.

아래의 특정한 기도의 부르심은 (7:7),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대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관계 가운데 개입해주시기를 구하는 맥락 안에서 설명되고 있다 (7:2).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와 부딪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구하며, 이 환경 가운데 개입해주시길 구하는 것이다.

⁷*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¹¹*How much more will your Father...give good things to those who ask! ¹²Therefore, whatever you want men to do to you, do also to them, for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Mt. 7:12)*

⁷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 ¹¹ ...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¹²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12)

D. We live in the fear of God, knowing that our obedience will be tested with pressure (Mt. 7:21-27).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받을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마 7:21-27).

²¹*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²²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Lord, Lord, have we not... done many wonders in Your name?"²³I will declare,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²⁴Whoever hears these sayings of Mine, and does them, I will liken him to a wise man... (Mt. 7:21-27)*

²¹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²²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²³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²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 (마 7:21-27)

E. **Summary:** Jesus called us to live out the *eight Beatitudes* (5:3-12) as we *resist 6 temptations* (5:21-48) and *pursue 5 kingdom activities* (6:1-20) that position us to freely receive more grace. We do all this with confidence in His *rewards* (6:20-24) and His *provision* (6:25-33). We do this *without criticism* of others who pursue God with less intensity or who oppose us (7:1-6), while we *seek Jesus to intervene* in our relationships (7:7-12). We do all in the fear of God, knowing that our love and obedience *will be tested* (7:21-27). By walking in these truths, we will impact society (5:13-16), be great in His eyes (5:19), receive treasures in heaven (6:19-20), and live in this age with our hearts exhilarated in His grace (6:22-23).

요약: 예수님은 우리가 **팔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셨으며 (5:3-12), 이와 함께 우리가 **6 가지 유혹들을 이겨내며** (5:21-48)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활동들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상급을 주시며** (6:20-24), **공급하실 것**(6:25-33)을 확신하는 가운데 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행함에 있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덜 열심히 추구하거나 우리를 반대하는 이들을 **비난하지 않으며** (마 7:1-6), **예수님께서 우리 관계 가운데 개입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7:7-12).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즉, 우리의 사랑과 순종이 **시험될 것을 알고** 행해나가야 한다 (7:21-27). 우리가 이 진리를 행해나감에 따라, 우리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5:13-16), 그분의 눈 앞에 위대한 자가 되며 (5:19), 하늘의 보화를 얻으며 (6:19-20), 지금 시대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인한 즐거움에 넘쳐서 살아갈 수 있다 (6:22-23).